

## 라틴아메리카와 라티노 사회의 다문화주의 논의의 쟁점: 혼혈담론과 문화 혼종성을 중심으로

이 은 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 1. 서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문화주의는 현재 세계 여타 지역에서 활발한 논쟁을 야기하는 것만큼 광범위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사회의 경우 다민족의 급속한 유입 증가로 인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시급한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문화다원주의가 사회적 현상이 될 만큼 타민족 혹은 타인종의 이동이 근거리 과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 논의가 다양한 인종의 일상적 공존이라는 문제에 과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논의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 문화 담론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고찰한다면, 우선 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원주민 인권과

주 제 어: 다문화주의, 라틴성, 라틴아메리카 혼혈, 문화횡단, 혼종성, 라티노 사회, 다문화적 정체성

**Multiculturalism, Latinity, Latin American Mestizaje, Transculturation, Hybridity, Latino Society, Multicultural Identity**

문화 복원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원주민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볼리비아, 과테말라, 페루, 에콰도르, 온두라스 같은 국가는 각기 15-50%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라틴아메리카 전체로는 평균 7%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다문화주의 논의는 원주민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논의의 법제화를 통해서 원주민의 권익상승으로 가시화되고 있기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의 기원은 1960년대의 시대적 요구였던 ‘차이의 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가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80년대 이후 대규모 인구변화로 인해 국가개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사회의 다문화주의의 핵심에는 국가의 ‘라티노화(Latinization)’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문화, 인종, 언어적 이질성을 이종 간의 결합에서 나온 태생적 결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의미의 혼혈을 다문화성과 연계하여 해석하고 정의하는 흐름이 주도적으로 형성되었다.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에서는 독립시기이후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태생적 혼혈에서 기인한 인종적, 에스닉(ethnic), 문화적 혼혈을 긍정적으로 파악해야만 했고, 이런 혼합양상을 기반으로 국가성을 창출하기 위해 혼혈담론을 생성, 발전시켰다. 이후 혼혈담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수-소수 문화 혹은 중심-주변부 문화의 혼합을 창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혹은 양문화주의(biculturalism)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사회 통합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위해 다문화 현상과 국가 개념의 연관성에 관한 심화된 논의를 생산해냈다고 하겠다. 이런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이들은 현재 부각되는 다문화주의와 탈국가주의 논의에 선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다원주의가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문화주의는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의 지역적, 에스닉, 문화적 혼혈이 양산한 상호문화주의

혹은 양문화주의 논의에 가깝기 때문에 논의의 주제와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라틴아메리카적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혼혈담론과 문화 혼종성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이 개념을 작품의 중심 모티브로 삼는 몇몇 라틴아메리카와 라티노 작가들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 혼종성 개념을 통해 다문화적 사회와 국가를 반영하는 작가의식이나 문학적 고민<sup>1)</sup>을 다루기보다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작가가 개별적으로 겪는 다문화적 경험을 통해 문학적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개괄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즉, 작가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혼혈과 국가개념의 연관성, 혼혈을 국가개념으로 등치시켰던 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도전, 새로운 다문화화를 향한 인식론 등의 논의들을 읽어낼 것이다. 이를 통해 혼혈을 통한 국가개념의 수정, 라틴아메리카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재고, 양반구의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아메리카를 보는 시각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 2. 본론

### 2.1. 월터 미놀로의 상호문화성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문화주의란 새롭게 부상한 용어가 아니라 이미 독립 시기에 국가형성을 도모하면서 표면화된 담론으로서 그동안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논의를 통해 문화횡단(Transculturation), 혼종성(Hybridity),

---

1) 이런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작가의 고민은 국가적 경계를 넘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국내외적 이민의 경험, 다양한 인종적/에스닉 공동체의 경험, 대도시의 변화 경험, 경제지역 거주 경험, 라틴아메리카를 통해 체험한 북미에 대한 경험 등을 말한다. 또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수자문학, 주변부문학, 원주민문학, 하위주체 문학 등에서 드러나는 다문화적 경험, 상호문화적 경험 등을 모두 포괄한다.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 등의 개념을 정립해 왔다. 그런데 이 개념들을 살피기에 앞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 혹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문화주의가 지닌 이론적, 실천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sup>2)</sup>때문인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라틴아메리카 학자인 월터 미놀로(Walter Mignolo)가 다문화주의보다는 상호문화주의라는 개념을 선호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상호문화주의가 의미하는 바, 혹은 지향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미놀로가 제기한 라틴성(Latinitiy) 개념 논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놀로는 역사적으로 라틴성을 정의해 온 방식과 그것에 도전해야 할 당위성을 제안하기에 앞서, 라틴성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상호문화성 개념 분석을 우선시한다. 미놀로가 새롭게 정의하고, 제안하는 상호문화성은 구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문화 정체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현 다문화주의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미놀로는 *The Idea of Latin America*(라틴아메리카라는 아이디어)에서 ‘라틴아메리카’라는 역사적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근대성/식민성의 근거가 된 유럽중심주의와 지식의 식민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즉, 식민주의자와 유럽계 혼혈인인 크리오요는 라틴아메리카를 구성하는 인종과 문화를 선별적으로 채택하여 현재의 ‘라틴아메리카’라는 개념을 생산했기 때문에, 지배계층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를 제외한 채 식민주의적 기획과 식민적 지식체계에 기반하여 이 개념을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그가 ‘라틴아메리카’라는 아이디어를 문제시하는 것은 현재 다문화주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인 ‘다양성의 진정한 공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를 구성하는 각기 다른 인식론이 주된 담론 속으로 통합, 말살되는 것이 아닌 완전히 공존을 위해서 존재가능한 새로운 문화 양식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기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재정의는

---

2) 다문화주의는 국가의 정책으로서 다양한 그룹들의 정치요구를 무마하고 오직 조화만을 강조하는 문화환원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표방하는 진정한 목적, 즉 ‘차이의 균등한 존재’와 일맥상통한다.

미놀로는 상호문화주의를 다문화주의가 지니는 정치적 함의와 위험을 대체할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는 1990년 원주민 사회운동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특히 에쿠아도르의 인디오 국가성 연합(Confederación de Nacionalidades Indígenas)이라는 이중언어 교육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오직 원주민들에게만 강요되었고, 국가에 의한 교육 계획안과 인디오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교육안은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 원주민은 언어교육의 차원이 아닌 정치 이론과 경제를 아우르는 보다 넓은 차원의 탈식민적 지식 체계 개혁을 원하고 있었다. 미놀로에 의하면,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내에서 동일한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다른 논리를 조화롭게 결합해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국가에서는 상호문화주의를 다문화주의로 대체해 국가경영에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문화주의는 정치, 경제, 도덕, 교육을 주도하는 체계모니적 지식체계가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국가 주도의 인식론적 원리에 도전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킬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상호문화주의는 두 개의 다른 우주론이 문화적 권리를 뛰어넘어 근본적 의미의 인식론적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한층 더 존재론적인 생각이다(Mignolo 2005:117-118). 원주민이 지향하는 상호문화주의처럼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다양성의 진정한 공존이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달성하고자 한다면, 미놀로의 주장대로 다양한 우주론/인식론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상호문화주의”는 하나 이상의 유효한 우주론을 지닌 다원적 문화 국가로 이끌게 될 것이다. “다원적 문화주의”는 유토피아적 지향점으로, 그것을 통해 자유공화국의 쇠락과 균열을 넘어 지식, 정치이론, 경제, 윤리학, 미학의 차원에서 모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3)

미놀로는 이러한 상호문화주의를 실천적으로 펼치고 있는 예를 아프로 카리브(Afro-Caribe), 아프로 인디언(Afro-Indian) 철학으로 들면서, 이 철학들이 기원은 다르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상을 추구하면서 식민지적 상처와 제국/국가적 이익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한다(Mignolo 2005:124). 또한 사파티스타(Zapatista) 운동과 식민지 시대 페루 역사학자인 와망 포마(Waman Poma)의 정치론에서 유사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이들이 과거 스페인-포르투갈에 근거를 둔 크리오요 에토스(Criollo Ethos)와는 전혀 다른 논리에 근거를 둔 원주민 에토스(Indigenous Ethos)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한다고 밝힌다(Mignolo 2005:128). 서구중심의 근대성에 저항하는 이런 원주민 에토스를 인정하는 일이 라틴아메리카 다원적 문화주의를 획득하는 길이자, ‘라틴아메리카’를 만든 식민적 지식체계를 거부하고 변화 속에 놓여있는 다양한 구성인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라틴성의 개념에 도전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주의의 방식이 차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라틴아메리카’라는 개념은 흑인, 라티노, 원주민 등을 라틴아메리카의 일부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계급에 의해서 생산되었고, 크리오요 지배층에 의해 재생산된 식민성/근대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라는 아이디어는 편파적/편의적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라틴계 후손의 유럽인들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개념을 소외계층들이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성/근대성을 파헤치다 보면 원주민, 아프리카 출신 카리브인, 라티노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라틴성을 지탱하는 식민세계관을 드러낼 뿐 아니라 현재 공유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개념적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Mignolo 2005:129).

---

3) ““interculturalidad” would lead to a pluri-cultural state with more than one valid cosmology. And “pluri-culturalidad,” at the level of knowledge, of political theory and economy, of ethics and aesthetics, is the utopian goal toward which to build, a new society constructed over the cracks and the erosions of the liberal and republican state.”, Walter D. Mignolo, *The Idea of Latin America*, P.120.

미놀로는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로 라틴성에 대한 재정의의 요구하면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혼혈과 국가성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미놀로의 이론은 뒤에서 살펴 볼 문화혼종성 논의의 한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론의 교차와 공존을 내포하는 혼종 담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의 목적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사고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또한 혼혈/혼종의 재정의가 이제 라틴아메리카의 남반구적 범위를 넘어서 아메리카의 대륙적인 사안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의 대상을 확장해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시각을 보여준다. 그는 안살두아의 경계지대의 새로운 혼종성을 예로 들면서 ‘히스패닉의 도전(Hispanic challenge)’이 인구의 팽창뿐 아니라 미국 정통 학제 규범을 거스르는 인식론의 근본적 변화를 아우르고 있다고 밝힌다. 이런 주장은 다음 장에서 살펴 볼 라티노 연구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탈국가주의와 상호아메리카주의(trans-Americanism)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2.2. 혼혈담론과 문화 혼종성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문화주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혼혈에 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혼혈은 단순히 피의 섞임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혼종까지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문화주의란 기본적으로 혼혈, 혼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다문화현상은 다인종적 대륙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생애적 조건이기 때문에 인종적 결합에서 생기는 문화적 다양성을 아우르는 일이 필요했고, 국가성을 형성하고 확립하기 위해서는 크리오요, 아메리카 원주민(Amerindian), 아프리카출신 아메리카인(Afro-hispanoamerican)이 만든 인종적 다양성과 이종적 문화를 인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가 국가형성시기부터 다인종/다문화의 국가성, 국가통합을 위해 포용하고 정의했다는 점<sup>4)</sup>에서 오늘날 국가 개념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는

다문화주의 담론의 선례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Mestizo Nations*(메스티소 국가)라는 책에서 후안 데 카스트로(Juan E. De Castro)는 문화횡단, 혼종성과 같은 문화론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혼혈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문화횡단과 혼종성이 라틴아메리카의 이질성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 이론들이 기대고 있는 혼혈 담론은 이런 이질성의 공유를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오히려 동일한 과거와 균질한 미래를 추구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이종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적 틀이 역설적이게도 공통된 과거와 미래상을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sup>5)</sup> 이런 면에서 국가의 문화, 인종, 에스닉 다양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는 문화횡단, 혼종성 담론은 오늘날 국가의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봉사하는 다문화주의의 한계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문화횡단이나 혼종성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식의 문화 종속, 혹은 거대문화로의 편입에 대한 저항과 도전을 읽어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혼혈과 북미의 용광로(melting pot)의 차이는 문화횡단(transculturation)과 문화접변(acculturation)사이의 차별성에 있다고 하겠다.<sup>6)</sup> 문화횡단은 양 문화가 충돌하는 경우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조되는 결과물의 생산방식에 연구 초점을 두었다. 앞서 밝혔듯이,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지니는 함정은 공존하는 문화 간의 균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산한다는 기치와는 달리, 실제로는 문화접변과 마찬가지로 강한 문화에 흡수되고 마는 현상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문화횡단은 이런 함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iz)의 용어인 문화횡단은 앙헬 라마

---

4)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이나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는 인종적인 관점에서 근대성, 국가 개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저술이다.

5) Juan E. De Castro, *Mestizo Nations*, P.9.

6) *Ibid.*, P.5.

(Angel Rama)의 *Transculturación en América Latina*(라틴아메리카의 문화횡단)를 통해 문학연구에 적용되면서 그 논의의 범위를 라틴아메리카의 대륙 내부간의 문화 갈등으로 변화시킨다. 오르티스는 쿠바가 서양 열강의 침략 후에 서구문화로의 동화와 원주민 문화의 척결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쿠바인들이 보여준 창조적이고 변용적인 능력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강자와 약자의 문화 충돌 속에서 약자 문화가 흡수/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존속을 위해 차별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적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반면, 라마의 경우는 서구와 원주민의 만남보다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도시문화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던 지방문화간의 위계적 접촉에 관심을 두었다. 서구의 근대문화에 영향을 받은 도시의 경우 전통 문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반면, 지방의 경우 과거의 색채를 보유한 채 도시의 근대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층 더 주체적인 혼종 문화를 창출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가 분석한 페루 작가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José María Arguedas)는 지방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양 문화를 넘나들며 획득한 개인 성장 경험을 통해 문화횡단의 창조적 역할을 인식한 대표적인 작가로 언급된다.

문화 이론가인 가르시아 칸클리니(García Ganclini)는 *Hybrid Cultures*(혼종 문화)에서 탈국가적 문화횡단의 상황에 대한 매우 시의적인 연구를 펼친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의 문화 분석을 시도하면서 문화의 탈영토화 현상에 대한 논의를 개진한다. 나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근대/전통, 국내/국외, 고급/대중문화 간의 차이를 넘어들며 가속화되는 혼종성 현상을 진단한다. 이 혼종성 현상을 칸클리니는 국제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하에서 더욱 더 다문화적 사회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탈영토화의 과정을 통해, 중심 문화와 주변부 문화 간의 보다 용이한 넘나들의 결과로 생긴 긍정적이지도 필연적인 문화현상으로 파악한다.

그럼에도 카스트로의 주장처럼, 문화 혼합을 창조적으로 이해한 이런 이론적 시도들이 미놀로가 제기한 진정한 공존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카스트로는 위의 담론들이 과거의 국가형성시기의 혼혈담론이 지향한

국가 통합론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안토니오 코르네호 폴라르(Antonio Cornejo Polar)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폴라르에 의하면, 혼혈이나 혼종성 같은 담론은 문화적, 문학적 분석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칸클리니는 혼종적 문화의 풍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증을 제시하지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비판적이지 않고, 라마의 문화횡단은 혼혈을 보다 세련되고 복잡해진 개념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결국 복잡다단한 사회 현상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혼혈이라는 개념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문학의 조건을 가식적으로 위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갈등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분열적이고 대항적인 실제 사회와의 달리 조화롭고 평화로운 이미지만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할 때 의존하는 개념이라고 분석한다.<sup>7)</sup>

이런 비판을 감안해 볼 때, 페루 작가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는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혼종성은 국가 혹은 국가적 정체성의 안전한 존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되고 요구된다는 비판에 놓여있지만 그는 이것을 과감히 비껴가고 있다. 아르케다스는 페루 안데스 지역 출신으로 케추아어(Quechua)를 사용하는 원주민 공동체와 긴밀한 접촉을 맺으며 성장했다. 자신의 인생과 창작을 통해 케추아어와 스페인어, 혹은 원주민과 크리오요 사이의 양문화적 혹은 다문화적 사람이 되는 것이 혼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문화주의 논의에서 아르케다스의 가장 큰 기여는 오늘날 페루 다문화주의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우리’라는 개념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우리’는 하나의 주체 안에 다양한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아르케다스는 1968년 잉카 가르실라스 데 라 베가 상을 받으면서 나는 문화변용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연설을 하면서 이런 관점을 피력했

---

7) Antonio Cornejo Polar, Mestizaje and Hybridity: The Risks of Metaphors, in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P. 761.

다. “나는 페루인으로, 마치 행복한 악마처럼 자랑스럽게 기독교어와 인디 오어, 스페인어와 케추아어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스페인어와 원주민어 두 가지 언어를 할 줄 안다는 자부심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페루인이라면 하나의 주체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sup>8)</sup>

위의 언급처럼 아르케다스를 통해 심화된 페루사회의 다문화주의는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초 원주민 지식인들과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도입한 상호 문화주의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생산하는 인식론의 동등한 상호 존중을 통해 한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문화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렇듯 아르케다스는 페루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면서 스페인과 케추아, 혹은 크리오 요와 원주민 사이의 적대관계에 근거한 이분법을 거부할 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전통적인 개념을 극복한다. 그는 양문화적 혹은 다문화적 페루인의 정체성이 국가 개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통적 혼혈 담론에 치열하게 저항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다문화성 획득을 통해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기존의 다문화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혼종성, 문화횡단 논의가 분석하고 있는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통합과 합일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아르케다스는 다문화성 자체가 목적이 되는 열린 개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암시하는 다문화성은 한 국가가 다인종, 다문화로 구성되었다는 인식뿐 아니라, 국가구성원 개개인이 단일한 동질적 자아를 벗어나 문화적 혼종을 내면적으로 체험하고 정립하는 주체로 변모되었다는 인식이다.<sup>9)</sup>

위의 인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우리’라는 개념은 다음 장에서 살필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가 얘기하고 있는 ‘메스티사(Mestiza) 의식’, ‘경계지대인의 의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안살두아의 삶을 관

8) 우석균, “다문화주의와 페루 안데스”, 미출판 원고, P. 7.

9) Castro, op. cit., P. 120.

찰해 보면 아르케다스가 주장하는 다문화적 주체성의 의미와 배경을 심화, 확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 또한 동일한 국가적 혹은 에스닉 정체성의 붕괴뿐 아니라 단일한 주체성이라는 개념 또한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투라는 배경을 지니고 스페인어과 케추아어라는 양문화사이의 넘나들음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적 주체성이 이제 아메리카의 반구를 넘나들며 이중 혹은 삼중 언어의 세계 속에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 3. 라티노사회의 다문화주의

#### 3.1. 리차드 로드리게스와 안살두아의 경계지대

라틴성이 이제 아메리카의 남반구를 넘어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계를 모두 아우르는 큰 공간을 지니게 되었다는 미놀로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의 논의는 라티노의 형성과 분화라는 복잡한 맥락 하에서 발전한다. 라티노의 증가로 인해 미국의 다문화주의 논의가 심화된 것처럼 라티노 사회와 라틴아메리카 사이의 역학에 의해 다문화성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 요구는 지방의 변형된 발전, 카리브 지역의 새로운 에스닉 구성, 대도시의 이민 인구의 다양성, 대중문화의 확산, 원주민의 권리 요구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는 이제 라틴아메리카라는 남반구적 배경을 넘어 북미에 대한 경험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적 식민화의 경험에서 온 혼혈, 도시화를 통한 국내적 문화 충돌, 대중문화의 일상화, 세계화로 인한 문화의 혼종,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생긴 다문화 흐름에 라티노와 라틴아메리카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또 하나의 시각을 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 개념에 수정을 가할 뿐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개념의 교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리차드 로드리게스(Richard Rodriguez), 글로리아 안살두아, 에드문도 파스-솔단(Edmundo Paz-Soldán)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상징하는 다문화주의의 기획과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것이 지금 더 시사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생긴 즉각적인 개인 경험의 변화가 혼종성과 다문화주의의 인식에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다. 이들이 겪은 이민, 경계성, 탈국가성등의 차이가 각기 다른 성격의 다문화주의 논의를 이끌고 있다. 즉, 멕시코인, 치카나(Chicana), 혹은 볼리비아인, 볼리비아 출신 라티노 등등의 중첩된 정체성을 근거로 라틴아메리카와 미국 사이의 문화 역학을 통해 변화하는 다문화인상을 체화함으로써 차별적 논의를 만들고 있다. 앞 장에서 다룬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이 작가들이 양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주의를 사적 삶의 여정을 통해 체화한다는 점에서 각 작품을 문학적이자 인류사회학적 텍스트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만든 배경을 살펴보면, 로드리게스는 70년대 이후의 치카노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중언어교육에 반대하고, 다문화주의나 에스닉 정체성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90년 이후 *Days of Obligation*(의무의 날들)과 *Browning of America*(아메리카의 유색화)라는 작품을 통해 본인이 지녔던 기존의 관점에 큰 변화를 드러낸다. 시간적 차이를 둔 *Days of Obligation*(의무의 날들)과 *In hunger of memory*(기억의 굶주림) 사이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 변화는 미국 남서부의 인구문화지형도의 변화, 즉 치카노 인구 증가와 사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에서 비롯된 작가의 인식 전환이라는 점에서 실증적, 체험적, 유동적이라고 하겠다. 로드리게스의 혼혈, 혼종에 대한 인식 전환이 라티노성의 변화뿐 아니라 미국 국가 개념, 다문화주의, 문화횡단, 탈국가주의 등을 인지하는 시각의 변화에 그대로 충실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현재 라티노 인구는 1920년 때부터 닉슨 정부까지 시행한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 Program)으로 인한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이민 온 멕시코인을 비롯하여 1970년부터 푸에르토리코, 남미, 카리브해 연안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혹은 독재를 피해서 온 이민자까지 합쳐 총 인구가 칠레, 볼리비아, 페루를 합친 인구보다 많은 수를 이룬다. 멕시코 혹은 브라질을 제외한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인구를 상회하는 거대한 히스패닉 인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북미의 앵글로 혹은 남미의 라틴으로 구분하는 일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라티노는 멕시코, 쿠바,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 외에도 중미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를 지리적 영역과 결부하는 고정적 개념이 불필요해져가는 상황이다. 이런 인구 변화가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로드리게스는 다른 일반 치카노 작가나 비평가들과 차별된 입장을 지녀왔다. 보통 주류 치카노 작가나 비평가들은 미국 주류사회와의 대척점을 지니고자 소수 민족의 정체성 규명을 강조하는 반면,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멕시코 배경을 거부하고 주류 사회로 완전한 편입을 이루고 난 후 미국 중류층의 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한다. 그는 개인적/공적, 미국적/멕시코적이라는 이분법에 근거하여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한쪽을 포기해야만 했던 과거를 밝힌다(Castro 2002:102). *In hunger of memory*(기억의 굶주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데, 스페인어는 사적인 언어로 가정, 유년기,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영어는 사회, 교육, 권력 등의 공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였다는 것이다. 양 언어를 가르치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공적 언어에 대한 강조로 인해 사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을 지우도록 종용받았다고 고백한다(Castro 2002:103). 한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가족언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대학에 입학해서 가정을 떠나기 전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지 또한 알게 된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한다. 그래서 다문화인이 되기보다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지식에 자신감을 지니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대학에서 자신의 모국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과해야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라고 말하는데,<sup>10)</sup> 이 말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반대를 분석한 미놀로의 텍스트를 떠올

리게 한다. 미놀로에 의하면 이중언어교육은 원주민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완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민족성, 문화, 언어, 성적인 모든 고유한 특성을 은폐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중교육은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상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주류 치카노 작가나 학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미국의 중간계급의 사회에서 이런 성공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보수성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주류 치카노 작가나 비평가들의 주장이 보여준 미국 사회의 차별 정책에 대한 안이하고 순진한 대응에 대한 비판적 자기 생존방식이라고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Days of Obligation*(의무의 날들)에서는 이런 이분법적 구분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두 세계의 교류를 강조하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라티노화, 특히 멕시코 문화가 주류사회에 침투해 그들을 대체해 가는 캘리포니아를 직접 보고 느낀 작가의 일상적 체험에서 나온다. 미국 남서부 지역의 인구 이동이 실질적으로 사회문화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 특히 멕시코인과 앵글로 미국인 사이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 문화적, 언어적으로 이중화되는 미국 남서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변화로 인해 재발견한 멕시코성은 그동안 부인했던 멕시코의 문화의 가치 평가로 이어진다. 그는 멕시코 문화를 비극적 문화로 규명하면서, “비극적 문화는 긍정적 문화보다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 비극적 문화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장례식을 풍요롭게 한다(tragic cultures serve up better food than optimistic cultures; tragic cultures have sweeter

---

10) “Now we have this idea that, not only do you go to first grade to learn your family’s language, but you go to a university to learn about the person you were *before* you left home. So, rather than becoming multicultural, rather than becoming a person of several languages, rather than becoming confident in your knowledge of the world, you become just the opposite. You end up in college having to apologize for the fact that you no longer speak your native language.”, 스콧 런던과의 “A View From the Melting Pot: An Interview with Richard Rodriguez” 인터뷰.

children, more opulent funerals)”<sup>11)</sup>라고 정의한다. 이제 작가는 멕시코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미국의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데 더 이상 불리한 대적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아가 현재 미국의 언어와 문화는 스페인어와 라티노 문화의 영향 속에서 교차와 혼합의 과정을 통해 분리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혼종성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멕시코의 위대한 연방주의자이자 변증자였던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한 인종이 아닌 다수의 인종을 피 속에 지닌 새로운 종족을 말하는 ‘우주적 인종’이라는 훌륭한 용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 온 멕시코인은 결국 동화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충실하다”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네가 진정으로 네 문화에 충실코자 한다면 너는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는 일에 찬성할 것이다. 영어를 배우고 미국화되는 데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이 되고 두려움을 덜 느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멕시코인인 것이다”라고 말한다.<sup>12)</sup>

이렇듯 로드리게스는 멕시코인에게 혼종성, 다문화성이 생래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는 마치 바스콘셀로스가 유럽인과 원주민의 인종적 결합에 의해 탄생된 멕시코인을 우주적 인종이라고 부른 것처럼 현재 변화되고 있는 미국사회를 보면서 유사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21세기 미국에서 문화적, 인종적, 에스닉 정체성의 혼합이 증가되는 현상을 “Browning of

---

11) Richard Rodriguez, *Days of Obligation*, P. xvi.

12) “Jose Vasconcelos, Mexico's great federalist and apologist, has coined a wonderful term, *la raza cósmica*, “the cosmic race,” a new people having not one race but many in their blood. But Mexicans who come to America today end up opposing assimilation. They say they are “holding on to their culture.” To them, I say, “If you really wanted to hold on to your culture, you would be in favor of assimilation. You would be fearless about swallowing English and about becoming Americanized. You would be much more positive about the future, and much less afraid. That's what it means to be Mexican.”, 스콧 런던과의 “A View From the Melting Pot: An Interview with Richard Rodriguez” 인터뷰.

America(미국의 유색화)”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이런 혼종성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표명한다. 로드리게스는 남서부의 점차적 변화를 통해 메스티조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혼종문화를 통해서 미국사회의 주류를 이룰 메스티조의 탄생을 예견하고 발전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혼종성은 라틴아메리카의 혼혈 담론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혼종성을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미국이 현재 봉착하고 있는 유색 인종화 문제를 창조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로드리게스에게서 호세 바스콘셀로스<sup>13)</sup>의 유토피아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Castro 2002:107-108). 그러나, 그의 개인적 경험은 다문화주의를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개념<sup>14)</sup>으로 파악하는 데 큰 전환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미국의 유색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가 추구하는 인종적, 문화적 혼종성은 결국 또 하나의 통합이데올로기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Castro 2002:118). 앞서 밝혔듯이 다문화주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원성이 더 큰 통합의 패러다임을 향한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차이들의 완전한 공존과 결합이 가능한가하는 측면에서 로드리게스의 인식의 전환은 안살두아의 제안과 차이가 있다.

13) 바스콘셀로스의 1925년 *La Raza C6smica*는 혼혈 담론의 유토피아적 시각이다. 바스콘셀로스의 우주적 인종은 이 라틴성의 정신을 구현한 철학적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백인, 아시아인, 흑인, 원주민, 태생적으로 원주민, 흑인, 스페인인, 포르투갈인은 혼합된 사람들이다. 모든 종류의 혼혈로서 탄생한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는 생리적인 혼합이지만, 인식적으로는 순수한 결정체라는 것이다. 혼혈된 인종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은 결국 유럽적 전통에 뿌리를 둔 철학, 지식, 미학 등으로 이것이 이 대륙에서 지속된다고 생각한다. 히스패닉(Hispanic)을 제 5의 인종으로 규명하면서 미래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14) 물론 인종이라는 뜻에 문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화가 혼합될수록 인종을 나누던 분류 자체가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본다.

안살두아는 양 쪽 사이에 낀(in-between) 경계지대의 의식을 모든 모순적인 것에 열려있는, 역사상 새로운 의식으로 규명하지만, 로드리게스가 주창하는 새로운 유색화를 통한 혼종적 인종론과는 다른 인식론에서 출발한다. 안살두아가 말하는 경계지대는 대규모의 인구가동뿐 아니라, 경계지대의 인식론, 메스티사(Mestiza) 의식을 통해, ‘혼혈의 대륙인 라틴아메리카’가 내포한 모순적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확대된 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안살두아의 ‘새 메스티사 의식(New Mestiza Consciousness)’은 지정학적, 생물학적 중심의 생각하기 방식으로 해석된다. 역사적으로 메스티조는 독립 후의 탈식민화과정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크리오요에 의해 점유된 공간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라틴’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메스티조, 크리오요 모두 유럽적 뿌리를 강조한 것으로, 인식론의 합일이 동반되지 않은 피의 혼혈만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녀는 ‘메스티사’라는 의식을 통해 앵글로와 메스티조 사이의 경계지대를 넘나들면서, 멕시코의 혼혈성 개념이 지닌 남성위주의 식민성에 도전한다. 즉, 가부장적 논리가 작동하는 라틴-이베로(Latin-Ibero) 아메리카의 ‘동질한’ 혼혈성을 원형으로 구축된 메스티조 개념으로는 혼혈의 진정한 의미를 전취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안살두아는 자신의 경계인적 삶의 체험을 기반으로 혼혈의 새로운 의미를 전취한다. “삼중의 문화를 살거나, 단일 언어 사용자, 이중 언어 사용자, 혹은 다중언어자로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메스티사는 지속적인 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복잡한 종류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도대체 브라운 피부색의 어머니를 딸로서 어떤 공동체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Being tricultural, monolingual, bilingual, or multilingual, speaking a patois, and in a state of perpetual transition, the mestiza faces the dilemma of the mixed breed: which collectivity does the daughter of a dark-skinned mother listen to?)”<sup>15)</sup> 하는 질문을 통해 혼혈은 구체적인 삶의 환경을 통해, 또한 자신의 신체적

15)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100.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주어진 조건이 아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매 순간의 선택이라는 의식으로 전환된다. 이런 혼혈의 문제를 새롭게 전취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양 지역의 인식론을 횡단하는 상호문화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담론 형성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고 지식 생산을 주도해 온 계급이 정당화해 온 자기 우월성을 거부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새 메스티사 의식을 지니기 위해서는 지식과 존재의 탈식민화를 위한 비판적 의식이 선조건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안살두아의 의식은 단순한 인식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학술방향, 학제적 근간,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지식 생산의 원칙을 포함한다고 분석한다.<sup>16)</sup>

안살두아는 메스티사 의식을 전취하기 위해, 즉 진정한 다문화성을 획득하기 위해, “부자연스런 경계의 감정적 잔류에 의해 만들어진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장소(a vague and undetermined place created by the emotional residue of an unnatural boundary)”<sup>17)</sup>인 경계지대의 삶을 살기를 제안한다. 따라서 안살두아의 인식론적 제안은 크게 세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혼혈의 개념을 재정립했다는 점, 둘째 미놀로가 말하는 상호문화론의 의미를 전취하고자 했다는 점, 셋째 국경의 개념을 허물면서 라틴아메리카 혹은 북미라는 국가적, 지역적 개념을 재정의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 3.2. 에드문도 파스-솔단과 ‘새로운 라티노’

에드문도 파스-솔단은 미국 태생으로 멕시코 문화를 살아온 위 치카노 작가들이 겪는 양문화적 경험과는 다른 출신 배경을 지니고 있다. 볼리비아 태생의 작가이자 미국 이민 생활을 오래한 라티노 작가이고 스페인어로 창작을 하기 때문에, 미놀로가 제기하는 라틴성의 확장개념에 더욱 부합하는

16) Walter Mignolo, *The Idea of America*, P.140.

17) Anzaldúa, op.cit., P. 25.

실례를 제공한다. 파스-솔단은 로드리게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거주 경험을 통해 다문화적인 주체성을 지니게 되었고, 그런 다문화적 경험이 라티노-라틴아메리카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면서 반구적 한계를 벗어나 전 아메리카의 관계로 그 범위를 넓혀 가는지 보여준다. 역동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노출된 파스-솔단의 개인적 경험과 작품세계를 통해, ‘새로운 라티노’<sup>18)</sup>의 등장과 다문화주의의 양상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아메리카의 남반구에서 북반구를 조망하는 제 1세대 이민자의 경험을 통해 상호언어적(interlingual)인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특히 그런 작가로서 지니는 고뇌와 희망에 대해 엿볼 수 있다.

그는 막론도 이후(Post-McOndo)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Se habla español*(스페인어로 말하다)의 편집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경험한 미국에 대한 환상, 기대, 실망, 불안감 등을 보여준다. 그는 *Spanish and Empire*(스페인어와 제국)에 실린 “Latino, Latin American, Spanish American, North American, Or All the Same Time?(라티노, 라틴아메리칸, 스페인 아메리칸, 북미 아메리칸, 아니면 전부 동시에?)”이라는 글에서 *Se habla español*(스페인어로 말하다) 작품집 출판이 지닌 의미에 대해 세세히 설명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이 작품은 네 명의 라티노 작가와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의 작품모음집인데, 전 작품이 스페인어로 창작 혹은 번역되었다. 파스-솔단은 볼리비아와 칠레 출신의 라티노 작가가 이 모음집을 만들었다는 사실, 특히 이 책의 제목이 “미국의 라티노 목소리”라는 사실을 양반구의 비평가들이 공히 비판했었다는 점을 들어, 비평가군에서 문학인구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한다(Paz-Soldán 2007:140). 즉, 막론도, 크랙(crak)세대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젊은 작가군의

18) 데보라 카스티요(Debra Castillo)에 의하면, 멕시코, 쿠바, 푸에르토리코에서 출생한 이민자들이 주요한 인구구성을 형성해 왔지만, 라틴아메리카를 강타한 경제 후퇴로 인해 90년대 중후반부터 라티노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아진다. 중미 출신 작가들은 미국 내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기도 하지만 주로 자국에서 출판한다.

세대적 경험이 미디어를 통해 이미 탈국가적이 되었다는 점, 또한 그들이 문학 선배들이 일군 미술적 사실주의라는 정형적 수식어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동시대 문학을 공유하고 창작하는 작가들이 미국을 겨냥해 스페인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시도를 비평세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그의 언급을 통해 미국 출판시장의 스페인어권 독자를 염두에 둔 라틴아메리카작가의 창작과 출판,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글쓰기, 라티노 작가군의 다양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라티노 작가들의 다양화와 함께 라티노 작가가 스페인어로 쓴 작품, 라틴아메리카 작가가 미국에 대해 쓴 작품, 라티노 작가가 영어로 쓴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누가 라티노이고 누가 라틴아메리카 작가인지 구분이 모호한 세상이 됐다는 점을 설파한다(Paz-Soldán 2007:141). 이렇듯 파스-솔단이 출판계의 변화를 언급하는 일 자체는 다문화주의가 문학계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반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파스-솔단은 위의 사례들에 속하는 개인적 경험을 탈국가적 작가로 겪은 다문화성으로 규정하면서, 안살두아가 말하는 새로운 혼혈, 즉 경계지대 살기를 이중 언어 사용의 변화를 통해 체현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의 다섯 번째 작품인 *la materia del deseo*(욕망의 소재)에서 스페인어와 영어의 교차 사용에 대한 실례를 들고 있다. 그의 교차 언어 사용을 위해서 데보라 카스티요가 말하는 문화적, 언어적 이중성(cultural and linguistic doubleness)을 반드시 지닐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Paz-Soldán 2007:150) 이는 미국에서 스페인어로 창작한 작품을 읽을 독자 대상자를 반드시 미국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언어의 교차 사용은 미국에서 내어나고 성장한 라티노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국적을 유지하며 스페인어로 글을 쓰는 자신과 같은 넓은 의미의 라티노작가가 현실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위해서 기댈 수 밖에 없는 서술방편이라는 설명을 한다. 초기 미국 생활동안 ‘순수한(pure)’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비평가들이 그의 앵글로주의(Anglicism)의 영향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문화와 언어

에 영향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스페인어로 생활하고, 창작하고, 호흡하지만, 언어적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인위적이고 제한적이었음을 인정한다(Paz-Soldán 2007:19). 이것은 그가 “국가적 언어가 아닌 경제적 언어로부터 생각하기 시작(begin to think from border languages instead of from national languages)”했다는 말일 것이다.19) 그는 다음처럼 미국 학계의 스펡글리쉬(Spanglish) 사용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스페인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의 경우, 언어의 변이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뿐더러, 자신이 창작하는 글이 미국독자에게 수용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은연중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내가 복잡한 인터랙셔널 게임으로서 개념적 시각을 통해 퀴트, 라틴아메리카, 언퀴트, 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사람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언어를 제외하고는, 낫 이븐 사커(Les sigue costando entender que una pueda estar interesada en quote unquote Latinoamérica desde punto de vista conceptual as a sophisticated intellectual game,...Mírense ustedes, ¿qué hay de parecido entre un venezolano y un boliviano? Nada, aparte del idioma. Not even soccer).”20)

이것은 그가 이제 미국에 뿌리를 둔 소수 인종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는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문학적 전통과 소통하지만 동시에 라티노 작가들의 영향에 열려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분임을 느끼면서도 라틴아메리카인, 볼리비아인, 스페인아메리카인 등의 정체성을 저버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라티노 정체성을 지닌다는 것의 의미를 확장하는 일인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문학 개념을

19) Debra Castillo, *Redreaming America*, P. 195. 재인용.

20) Paz-Soldán, “Latino, Latin American, Spanish American, North American, Or All the Same Time?”, in *Spanish and Empire*, PP. 149-150.

확대하는 일이기도 하다.

파스솔란이 예를 들고 있는 작품, *la materia del deseo*(욕망의 소재)는 여러 의미에서 혼종성, 다문화주의의 논의에 적합한 소재를 제공한다. 이 작품은 영어로 번역된 첫 소설이다. 주인공인 페드로 사발라(Pedro Zabalaga)는 볼리비아 출신으로 뉴욕 주의 한 대학의 라틴아메리카연구과의 교수로, 직업, 전공, 연령, 출신국가 등이 작가 자신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설이 마치 자전적인 글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는 학교에서 한 여자 대학원생과 별인 혼외관계로 인해 볼리비아의 가상 도시인 리오 후히티보(Río Fugitivo)로 피해 오게 된다. 실제와 창작을 넘나드는 소설적 장치뿐 아니라, 소설의 배경이 되는 가상 공간 또한 자신의 출신 도시인 코차밤바(Cochabamba)를 모델로 삼아 만들면서 아메리카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문화주의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소설의 공간을 통해 미국의 도시 기술 문명의 유입과 함께 전통적인 병폐를 앓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어느 도시, 혹은 미국 국경에 접한 어느 도시에나 해당할 장소를 재현하고 있다. 마치 자신의 분신과 같은 주인공을 통해 양 문화 사이에 놓인 라티노를 재현할 뿐 아니라, 스페인어 글 속의 영어와 영어로 번역된 작품 속의 스페인어를 통해 창작자와 독자의 다문화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카스티요가 “미국의 라티노와 “새로운 라티노”사이의 비교는 스페인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체성을 지니면서 생긴 특권이라는 문제로 시작해야 한다(A comparison between the “new Latinos” and Latinos in the United States has to begin with the issue of privilege that comes about by having a national Latin American identity and having the Spanish language as a dominant language)”<sup>21)</sup>라고 밝히고 있듯이, 그는 미국인, 라틴아메리카인, 라티노라는 범주에 모두 해당하면서 그 범주 자체 또한 유동적인 모습을 지니고 변형 과정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라티노의 다문화적 현상을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 Ibid., P.144. 재인용.

또한 파스-솔단은 자신처럼 주류 라티노에 속하지 않는 라티노 경험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주의 논의를 확산하고 정치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라티노 학자들의 연구 태도에 내재된 자기모순적인 입장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다양화되고 다문화화되는 라티노의 변화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라티노’라는 개념이 원래 혼종적 성격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통합 카테고리라 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Paz-Soldán 2007:144).

일례로 파스-솔단은 라티노 문학비평가인 니콜라스 카네요스(Nicolás Kanellos)가 편집하는 *En otra voz*(다른 목소리로)의 작가 목록을 논하면서, 몇 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창작하는 작가만을 포함시키고 있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배제, 소외, 존재 부정 등의 과정을 거부하는 라티노 평단에서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다(Paz-Soldán 2007:143-144). 히스패닉 문학이 정치적,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를 넘나드는 탈국가적 성격을 지닌다는 카네요의 분석과는 달리 실제로는 스페인어로 된 문학을 포괄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보면서, 주류 라티노 학자들의 고정된 시각의 편협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라티노를 ‘이종적 대안적 주체성(hybrid, alternative subjectivity)’이라고 정의하지만, 이런 분류를 통해서도 파스-솔단 자신의 정체성과 문학은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존 라티노들이 추구한 다문화성이 하나의 틀로 고착됐고, 이미 정형화되기 시작한 라티노 혼종성 개념으로는 오늘날 한층 더 탈국가적, 상호아메리카적으로 되어가는 새로운 라티노를 아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파스-솔단의 이야기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라티노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다문화주의의 변화된 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다문화주의는 라틴아메리카-라티노 작가들의 모호한 경계를 통해, 창작, 출판, 독서시장 등을 둘러싸고 표출되는 다문화성, 라틴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거대한 라티노 국가를 지향하기보다는 안살두아의 제안처럼 모순과 접촉, 교차, 혼합을 통해 자기 쇄신적인 역동성을 지닌 하나의 흐름으로 변모해 간다. 그의 논의를 통

해 다문화주의란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열려있어야 하며, 새로운 도전에 수용적이어야 하고, 정의를 거부하는 인식적 행위이자, 변화하는 혼종성의 양식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실천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 4. 결론

오늘날 다문화주의 논의는 정치적 함의를 지녔다는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문화주의가 표방하는 비는 이질적 집단의 균등한 대화와 공존이지만, 이것이 동질적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지향점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상호아메리카주의 논의는 현재 다문화주의 논의가 표방하는 진정한 목적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논의는 문화다원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김하게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여러 형태의 문화 혼종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국가성 형성시기와 맞물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혼종성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문화적 다양성이란 손에 잡기 어려운 사안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적/문화적 경전(캐논)에 포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구어적, 혼종적, 주변부적 문화행위를 제외시켰다. 혼종성, 주변부성의 개념과 더불어 기존 아카데미의 주된 관심사에서 비껴났던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재현이 90년대에 이르러 학계의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목소리가 없었던 하위 그룹들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구어체, 재현의 과정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며, 라틴아메리카 문학, 혹은 라틴아메리카 문화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기준을 문제시하는 데까

지 나아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호문화적 혹은 문화횡단적 텍스트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일로 라틴아메리카 문화와 문학의 경계적, 다언어적, 다시간적, 다문화적 성격을 밝히는 문제에서 큰 성과를 드러낸다.

본 글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는 본질적으로 상호적/횡단적 (inter/trans)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중언어와 문화를 통해 페루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아르케다스 경우를 살펴보고, 로드리게스나 안살두아, 파스솔단의 작가적 경험과 관점의 차이를 통해 라티노성의 변화를 유추해 보았다. 미국이 유색인종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삼으면서 국가라는 개념의 수정을 고민하는 것처럼 다문화주의의 기반이 국가를 정의하는 개념의 변형이라고 했을 때, 라틴아메리카를 이제 한 국가나 한 문화권을 형성하는 반구적 개념이 아닌 아메리카라는 대륙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히스패니즘 (neohispanismo)’의 제안처럼 서로 알지 못한 채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지 되물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한 연계와 더불어 국가적, 지역적 분리의 경험이 가속화되고 연계와 분리의 모순적인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학계의 주의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처럼, 다문화주의의 논의 또한 세계화되는 사회속에서 개인적으로 획득되는 다문화적 주체성의 요구로만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고유의 문제로 파악하는 심도있는 시각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성의 단순한 공존이 다문화주의로 환원되는 일반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적 고찰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우석균, “다문화주의와 페루 안데스”, 미출판 원고.

Anzaldúa, Gloria(1999),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Castillo, Debra A.(2005), *Redreaming America: Toward a Bilingual American Cultur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De Castro, Juan E(2002), *Mestizo Nations: Culture, Race, and Conformity in Latin American Literature*,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London, Scott, “A view From the Melting Pot: An Interview with Richard Rodriguez”, <http://www.scottlondon.com/interviews/rodriguez.html>

Mignolo, Walter D.(2005), *The Idea of America*,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az-Soldán, Edmundo(2007), “Latino, Latin American, Spanish American, North American, Or All the Same Time?”, in Echávez-Solano, Nelsy and Kenya C. Dworkin y Méndez (eds.), *Spanish and Empire*,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_\_\_\_\_ (2001), *La Materia del deseo*, Miami: Alfaguara.

\_\_\_\_\_ (2000), and Alberto Fuguet eds., *Se habla Español: Voces latinas en USA*, Miami: Alfaguara.

Polar, Antonio Cornejo(2004), “Mestizaje and Hybridity: The Risks of Metaphors”, in Trigo, Abril, and Ana del Sarto and Alicia Rios(eds.), *The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Read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Rodriguez, Richard(1992), *Days of Obligation*, New York: Penguin.

\_\_\_\_\_ (2005), *Hunger of Memory*, New York: A Dial Press Trade Paperback Book.

28 인문논총 제59집 (2008)

원고 접수일: 2008년 월 일

게재 결정일: 2008년 월 일

**ABSTRACT**

---

The last couple of decades have seen the proliferation of the discourse about multiculturalism, and the role played by literature in its constitution an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discourses of mestizaje, hybridity and transculturation in relation to multiculturalism throughout Latin American and Latino society. In Latin America, the discourse of mestizaje and the question of nation building have been so intimately intertwined since post-independence era. Diverse societies created by mestizaje have been obliged to cope with the cultural, racial, and ethnic heterogeneit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y. While the discourse of mestizaje and hybridity paradoxically was historically used to imagine a common past and a homogeneous future, it is, yet, still deeply related to current discussion of multiculturalism due to attempts to reconcile cultural, racial, ethnic heterogeneity with national identity.

The Latino writers who are dealt with here, such as Richard Rodriguez, Edmundo Paz-Soldán and Gloria Anzaldúa, are experiencing a process in which multicultural identities are being built and reconstructed in the stream of trans-americanism. They are producing diverse versions of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based on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which contribute to formulating the similarity and distinctiveness of their respective multicultural identities.

Even though Rodriguez argues that North American Latinization is developing a mestizo and heterogeneous society by a process of miscegenation and cultural interaction, it may lead to a greater and more profoundly

integrated common culture, and hybrid homogeneity. Unlike his contradictory reflection on multiculturalism, Anzaldúa sees the future as characterized by the proliferation of bicultural and multicultural identities by the simultaneous celebration of the border and permanence of cultural difference. Furthermore, Paz-Soldá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inter-lingual and trans-american experience and challenges previously consolidated concepts of Latino identity and multiculturalism stereotyped by dominant Latino scholars. Now their multicultural identities in perpetual change demand the correction of the concept of nation as well as the idea of 'Latin America'.